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9월 9일(금)

---(음력 8월 14일)---

Пятница

9 сентября 2022г.

№ 35 (12002)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단신

사할린주, 독감예방접종 시작

9월 1일부터 사할린주의 모든 외래 진료소에서 독감예방접종이 시작되었다.

환절기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주민들은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을 통해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다. 주 정부는 독감 백신이 러시아 보건부 주축으로 보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독감백신은 심장 관련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다. 심혈관 합병증은 독감으로 인한 잦은 사망의 둘째 요인이다. 바이러스는 심근육에 타격을 주어 심근염을 유발하고, 심부전을 일으킨다. 2년간 코로나 19와 싸우면서 코로나바이러스는 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백신 접종은 몸속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도록 도왔다."고 사할린주 수석 전염병 연구가 옥사나 솔로니나가 말했다.

사할린, 태풍 '힌남노'의 피해 처리 중

9월 7일 밤 사할린 지역은 강력한 태풍의 영향권에 속하면서 초속 35m의 태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렸다. 이날 송전선 사고로 6천7백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고, 나무들이 넘어졌다. 이번에 홋스크, 스미르니흐, 돌리스크,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네웰스크 지역에는 새벽에 전체적, 부분적으로 정전이 되어 저녁 무렵 도시 지역에 전기가 복구되었다.

기상 여건상 포로나이스크, 홋스크, 돌린스크,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지역의 학교 학생들의 수업은 원격으로 전환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코르사코프, 토마리, 네웰스크에서는 자율적 등교수업을 했다.

기상 악화로 타타르 해협의 선박 운항도 폐쇄됐다. 사할린 선박 8호,9호,10호는 날씨가 호전되기까지 와니로 항구에 정박됐다. 반면 도로와 철도 교통편은 통제되지 않았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은 정상적으로 운영됐으며, 지연된 항공편도 없었다.

9월7일 저녁 태풍은 사할린섬 북부로 이동하여 샤호츠르스크 해안가가 물에 잠겼으며,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지역에서는 나무들이 부러졌다.

현재 태풍 피해로 인한 처리작업이 진행 중이다.

새고려신문

2022년 하반기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 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6루블리 92코페이** 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 올해 9월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가 140주년을 기념한다. 기념행사들을 9월 5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시민행진을 비롯해 주요 행사는 9월 10일(토)에 펼쳐진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콤무니스티체스키 프로스펙트에 전시된 사진들.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과 쿠릴 주민 9만 명에게 연말까지 첨단 건강검진을 받도록

이에 대해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제7차 동방경제포럼 '의학 분야의 공개 토론: 인재, 기술, 새로운 세계에서의 가능성'라는 분임 토의 패널에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이 밝혔다.

"의료장비와 경제적 기술도입으로 사할린 지역에 15개의 종합건강검진센터를 개설했다. 지난해에는 7만3천 명이 검진을 받았고, 올해는 9만여 명이 검진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초에는 2만1천 명이 건강검진을 받았고, 올해는 이미 6만6천 명이 검진을 받았다. 종합검진은 신속하게 치료에 돌입하도록 하고, 심혈관 질환, 종양, 내분비계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신속하게 치료하도록 돕고 있다."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강조했다.

또한 의료 서비스의 효율적 이용 향상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 설명했다. 사할린주는 최근 3년간 1차 진료에서 의사의 업무계획 중앙집권 시스템을 조직했다. 이로써 기존보다 30% 이상 대기표가 추가로 생겼다.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보건진료센터로 가서 환자를 받도록 하기도 한다. 이는 주 병원에 환자를 100%가 아닌 50%-70%를 수용하기에 가능하다. 이런 접근 방식으로 신경과나 안과 등 세부 전문의에게 환자 대기표가 증가하도록 하고 있다. 사할린 지역에서 의사 진료예약은 몇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지역 특별 앱 속에 개인 계정, 국가서비스 사이트, 의료기관 정보센터 또는 24시간 운영하는 1-300 콜센터를 통해 진료예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내과를 통과하지 않고도 세부과목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기회는 종양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를 고려한 것이다. 특별히 외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 검진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스마트 응급진료센터) 체계가 돕고 있다. 현재 주의 10개 조산센터에 검진 진행 및 원격 정보 전송을 위한 장비가 공급됐다. 스마트 검진시스템을 통해 주민 2만5천여 명이 지방 중심이나 주 중심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도 검진을 받았다. 올해 이와 유사 기자재들이 13개 응급진료센터에 설치된다.

또한 외딴 지역 주민들의 건강검진과 종합건강검진을 위해 이동진료차량이 운영된다.

사할린주에서는 검진, 분석 검사, 치과, 엑스레이 등 47개의 다양한 진료과목의 이동진료차량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8개월 동안 이동진료차량으로 주민 3만5천여 명이 검진을 받았다.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의 거리' 열려

9월 5-8일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진행된 제7차 동방경제포럼 일환으로 극동의 지역들이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 섬의 야약스 만 해안가 전시관들에서 지역의 경제적, 투자적, 관광적 가능성을 전시했다.

올해 '극동의 거리' 전시회는 <러시아의 기술적 승리를 위해 너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표어 아래 진행됐다. 특별히 강조된 것은 극동지역의 수입대체 가능성 및 기술적 독립성, 자체 먹거리 공급 가능성에 대해 전시회가 조성됐다.

"사할린주 전시관에서 우리는 유즈노사할린스크 광역도시권 형성에 따른 지도력을 제시하고, 현재 사할린에서 실현되고 있는 투자기획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사할린의 석유·가스산업단지는 핵심 산업의 해외 부품 및 서비스 공급 의존도를 줄일 것이다. 농산물 저장과 가공을 위한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농산업단지는 지역 주민들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제공하도록 할 것이다. 현재 주에서는 산업과 새로운 에너지, 관광, 교통 분야의 투자기획들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단지들이 완성되면 1만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된 투자액은 6천 억 루블리다. 몇 달 전 외딴 섬들에서 기획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도입된 특별 정책이 쿠릴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확신한다."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강조했다.

전통적으로 사할린 전시관은 <극동의 거리> 전시관들 중 가장 인기있는 곳 중 하나이다. 올해 해안가에 밀려오는 파도 모양을 한 전시관은 사할린주 형성 75주년 상징하여 꾸며졌다.

설치물들은 관람객들에게 연방 행정자치지역들의 과거와 현재를 소개하고 있다. 전시회에서는 특별히 '보살핌, 보호, 존중'이라 지역 기획에 관심을기울였다. 사할린 주민 전자카드로 사할린 주민들이 문화와 스포츠 기관을 무료로 이용하고, 상점과 약국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제도 시범은 다른 극동 지역의 대표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일련의 지역들도 사할린주의 선도적 시범을 토대로 자체 유사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표명했다.

전시관을 방문한 사람들은 사할린의 비경 명소에도 관심을 보였다. 크로스컨트리 스키 코스와 화산, 다이빙, 낚시 등 모든 것이 사할린과 쿠릴의 비경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극동의 거리'를 벗어나지 않고도 가상현실 체험으로 모네훼 섬과 주변에 희귀하게 맑고 깨끗한 물, 그래서 дайвер들에게 특히나 매력적인 곳을 여행할 수 있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7주년 기념

지난 3일 (토) 러시아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의 날을 기념했다. 이날 사할린주에서 이와 관련 행사는 거의 모두 자치체들에서 진행되었다. 주요 행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슬라와(영예)광장에서 펼쳐졌다. 이날 참전용사, 주지사를 비롯해 주 및 시 정부 관계자, 사회활동가, 시민 등이 슬라와 광장에 있는 성화에 헌화하고 사할린과 쿠릴 해방을 위해 전사한 참전용사들을 향한 묵념을 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주민들에게는 '바로 이 기념일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섬지역에서 마지막 전투가 있었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패배했으며,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가 해방되었다."고 강조했다.

군사들의 열병식으로 슬라와 광장의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기념일과 관련한 많은 행사가 이날 가가린 공원에서 진행되었다. 저녁 8시 포베다(승리) 광장에서 초대가수들의 명절 공연이 펼쳐졌고, 기념일은 불꽃놀이로 막을 내렸다.

(취재: 이에식 기자)



사할린주한인협회, 학살 당한 한인 추념

지난 3일(토)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일을 맞아 사할린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을 비롯해 협회 회원들이 1945년 8월에 일본인들로부터 학살 당한 미즈호(현 포자르스코예, 홈스크구역)마을 27인 한인 피살자 추념비와 카미시스카(현 레오니도위, 스타미르니흐 구역) 사할린 한인 희생자위령비에 참배를 했다.

미즈호 27인 피살자 추념비 참배식에 참가한 홈스크 한인회 관계자들은 이날 제사상을 차려 절을 올렸다.

이날 박순옥 회장과 함께 주청년한인회 임원들이 레오니도위 희생 동포들을 기렸다.

(본사 기자)

(사진: 홈스크한인회 제공)



추석을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추석(秋夕) 또는 한가위는 음력 8월 15일로 설날과 더불어 한국의 주요 전통 최대 명절이다. 추석은 농경사회였던 예로부터 지금까지 한국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 중 하나다. 가배일(嘉俳日), 한가위, 팔월 대보름 등으로도 부른다. 가을 추수를 끝내기 전에(조선시대 추수는 음력 9월) 햅쌀로 만든 송편과 햇과일을 진설하고 조상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차례를 지냈다. 추석에는 일가친척이 고향에 모여 함께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전통이 있다. 이 때문에 해마다 추석이 되면 전 국민의 75%가 고향을 방문하여 전국의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열차표가 매진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를 흔히 '민족대이동'이라고 부른다. 추석은 음력 설보다 매출, 인구이동 등에서 수치적으로 더 높은데, 이는 설날이 양력설과 음력설로 나뉘며, 양력설인 새해 첫날을 쇠는 가정도 있어 수치가 분산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추석의 전날(음력 8월 14일)부터 다음날(음력 8월 16일)까지 3일이 공휴일이지만, 개천절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추석 연휴가 하루 더 늘어난다.

추석에는 널뛰기, 제기차기, 강강술래, 윷놀이, 씨름 등의 놀이를 한다. 보름달에 소원빌기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이다. **(참고: 위키백과)**

올해 추석은 9월 10일이다. **배순신** 본사 기자가 일부 주민들에게 '추석을 어떻게 보내실 것인가'라고 물어보았다.

강순자, 연금자, 69세: 잘 아시다시피 추석은 사할린에서 잘 쇠지 않아요. 날짜만 알고 있지요. 차례는 주로 양력 8월 15일에 합니다. 이번 추석은 9월 10일인데 이날 우

리 유즈노사할린스크시가 140주년을 맞이합니다. 저는 이날 행사들에 참가하거든요. 제가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무용단 단원인데 무용단이 이번에 아침 시민행진에 참가할 예정이고, 오후에는 '젼추쥐나(진주)' 무용단 단원으로 가가린 공원에서 하는 공연에 참가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취미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춤도 추고, 탁구도 해요. 추석날을 재미있게 보낼 것 같아요.

허은설현, 메가팔라스호텔 아시아레스토랑 주방장(한식), 59세, 한국교민: 사할린에서 지낸 것은 약 20년 정도 되었고 이번 추석은 출근해서 일만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모임, 잔치 예약이 많아서 이곳에서 추석은 일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전경자, 62세: 남편이 제사를 맡고 있으니 시부모님 명절제사- 차례를 양력으로 지냅니다. 그런데 제 큰 오빠 묘지는 제가 형제들과 함께 보통 추석날에 찾아가는데 이번에도 가볼 생각입니다.

최명희, 사할린동포 2세: 저는 지금 한국 안산 부모님 댁에 잠깐 와 있어요. 다음 주에 사할린에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추석은 부모님과 함께 보내려고요. 물론 명절상을 차려야죠. 그리고 추석 때 한국에 계시는 친척들과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배수니, 사할린국립대 2학년생, 19세: 추석날에는 외할머니 댁을 찾고 저녁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족 모임은 명절 때 자주 합니다. 지금 코르사코브 제2중학교에서 실습을 하는 중인데 이날 학교 초 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을 명절 추석'이란 행사를 개최하는데 행사 담당자인 한국어 교사 오 알라 선생님을 도울 겁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석을 맞아 친구들이랑 집에서 찰떡도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이 모 저 모

사할린 주민들, 16km 코스 수영에 참가

사할린의 스포츠인들과 건강한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사할린인들이 <승리를 향한 수영> 전통적 수영대회에 참가했다. 이는 9월3일 제2차세계대전 종전일 기념 및 베슬란의 '생명의 한 방울' 참가 추념 반테러운동을 위한 행사이다.

행사 진행에 앞서 참가자들은 슬라와(영예) 광장 불멸의 성화에 헌화하고 잠시 전몰장병들에 대한 묵념을 했다.

수영 출발은 코르사코브의 페르바야 파지 마을에서 시작했다. 27명의 참가자들은 바다에서 자유형으로 16km를 수영해야 했다. 경기는 릴레이 방식으로 치러졌다.

"이 코스로 우린 이미 4번째 진행을 하고 있다. 각 참가자들에게는 15분간 수영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만약 더 원하고, 능력이 있다면 이 코스로 계속 수영해갈 수 있다. 우리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선수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사할린 빙하수 수영연합회 알레리 쿠친스키 회장이 말했다.

참가자들이 전 코스를 수영하는 동안 이들을 의사, 구조대원, 주최자들이 수반했다. 수영 참가자들은 결승점인 아니와 지역의 페스찬스코예 마을 해변에서 경주를 종료했다.

참가자들은 대회 협력자로부터 메달과 상장과 상품을 받았다고 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Сахалинцы поучаствовали в 16-километровом заплыве

Сахалин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и приверженцы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традиционном заплыве "Доплыть до Победы".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ено окончанию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и приурочено к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акции памяти трагедии в Беслане "Капля жизни".

Перед началом заплыва участники возложили цветы к Вечному огню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лавы и почтили погибших минутой молчания.

Старт заплыва проходил в селе Первая Падь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27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стояло преодолеть 16 км в открытой воде свободным стилем.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ходили в виде эстафеты.

— Эту дистанцию мы поплывем уже в четвертый раз. На каждого участника отводится 15 минут заплыва, но, если есть силы и желание, можно продолжить маршрут — строгих правил у нас нет, главное, не создавать препятствий другим спортсменам, — рас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ледяного плавания Валерий Кучинский.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й дистанции участников сопровождали медики, спасате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Пловцы финишировали на пляже села Песчанского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Каждого из них наградили медалями, грамотами и подарками от партнеров,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사할린 동물원, 채소 헌물 접수

사할린 동물원에서 남는 과일과 채소 수집에 따른 전통적 연례 자선행사가 시작됐다.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농장, 과수원, 정원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 누구나 애호박, 조롱박, 호박을 비롯한 사과와 배 등을 사할린 서식 동물들에게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이외의 다른 채소나 과일은 적합하지 않다.

채소와 과일 접수는 관리자가 담당하는 가운데 가을철 수확물의 무게를 측정하고, 기부자의 연락처를 기록한다. 관리소 입구에 마련된 특별 바구니에 누구나 자유롭게 채소와 과일을 담아 놓을 수 있다. 11월 초에 행사의 총결과가 발표되는데 가장 큰 호박을 기부한 사람, 헌물의 부피와 무게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는 동물원 무료 관람권을 선사한다. 전화 문의는 30-37-47 및 8 (924) 880-37-47로.

Сахалинский зоопарк примет в дар овощи

Традиционная ежегодная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акция по сбору излишков овощей и фруктов началась в Сахалинском зооботаническом парке. С 5 сентября до 31 октября включительно все желающие из числа фермеров, садоводов и огородников могут порадовать оби-

тателей островного уголка живой природы кабачками, патиссонами, тыквами, а также яблоками и грушами. Другие овощи и фрукты животным не подходят.

Приём урожая ведёт администратор, он же взвешивает привезённые осенние дары и записывает контакты благотворителей. Помимо этого, овощи и фрукты можно свободно оставлять в специальной корзине, установленной на входе в учреждение. Итоги акции будут подведены в начале ноября: участники, подарившие самую большую тыкву и самый большой по весу или объёму урожай, получат приглашительные билеты на бесплатное посещение зооботанического парка. Вопросы можно задать по телефону 3037-47, 8 (924) 88037-47, сообщает зоопарк.

사할린주, 9월 3일 <승리의 딕탄트>가 열렸다

9월 3일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기념하는 역사 딕탄트(단답 시험)가 진행됐다. 수백 명의 사할린 주민들이 러시아 역사의 중요한 시대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점검했다. 행사에 어린 학생들부터 대학생 심지어는 고령의 노인들도 동참했다.

사할린주에서 총 70개 고사장에서 실시되었다. 그중 일부 교육기관 및 승리 기념박물관이 모두에게 개방되었고 군부대, 비상대책부와 러시아 방위군 건물은 폐쇄됐다.

딕탄트 결과는 시험을 치르고 한 달 후에 딕탄트 победы.рф 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다.

성적 우수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과 11학년 학생들 경우 국가수능시험에서 역사 과목에 가산점이 주어진다.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3 сентября прошел «Диктант Победы»

Исторический диктант в честь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прошел 3 сентября. Сотни островитян проверили свои знания о важном этапе истории России. К акции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школьники, студенты и даже пенсионеры. Суммарн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о задействовано 70 площадок. Часть из них — учебные учреждения и ММК «Победа» — открыли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В число закрытых включили военные части, здания МЧС и Росгвардии.

(8면에 계속)

라면 드실래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첫 라면축제 진행

지난 3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알레야' 쇼핑센터 앞마당에서 처음으로 '라면' 축제가 펼쳐졌다. 축제 주최로 나선 <사할린 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천영곤)가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시민들을 위한 첫 대규모 야외 행사다.

이날 축제는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학생들의 신난 판굿으로 멋지게 막을 올렸다. <사할린 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 천영곤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하여 사할린주 한인회 박순옥 회장,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 정책국 로만 흘루진 국장, 사할린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의회 로만 웨체네예브 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귀빈들의 인사로 이어졌다.

이날 사회 진행을 맡은 우 미하일은 라면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다.

현재 한국은 라면 1인당 수으로 세계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라면 종류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약 400개 종류의 라면을 생산하고 있다. 1963년에 '삼양'식품회사가 처음으로 끓여 먹는 라면을 생산했다.

이날 <오스트로브(섬)>동양무술센터 학생들의 태권도 공연, 이 센터의 안수학 관장(세계 태권도 한마당 격과 3회 우승자)의 주먹 격과 시범, 한국 태권도 검은 띠 6단 이형우 선수의 시범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날 에트노스 예술학교 학생들의 우아한 부채춤, 리듬이 강한 바라춤 등,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무용단의 민속춤, 서 마리아·강팔용·오미자 동포가수들의 독창, 플라멩코 무용단의 신나는 스페인 춤, 코르사코브 한인회 소속 예술단 등의 다채로운 공연은 수백 명의 관객들에게 한층 흥겨움을 돋우었다.

주최 측에 의하면 이날 시식대회에서는 한국의 신라면을 비롯해 대여섯 종류의 라면을 시식할 수 있었는데 국물라면, 볶음라면도 맛볼 수 있었다. 시식대회가 2시간반 동안 진행되었는데 시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줄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라면 30박스가 소비되었다. 축제 일환으로 펼쳐진 열컵라면 빨리 먹기 경연대회도 인기가 많았다. 참가상으로 신라면을 받을 수 있었고 우승자는 라면을 끝일수 있는 냄비를 부상으로 받았다.

이날 어린이들 사이에 무술대회를 펼치기도 하고 다양한 콩쿠르도 진행되었다. 관객들을 위해 여러 물품 판매도 준비되었다.

관객들도 즐거워했고, 주최 측도 대회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어서 만족해 했다.

(취재: 글/배순신 기자, 사진/이예식 기자)



지난 9월 1-2일 한국 대구시에서 민족통일대구시청년협의회(회장 하태균) 주최로 제7회 '사할린의 밤'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여러 곳의 사할린 동포회 회장 15명이 초대를 받아 참석했고 안산, 오산, 화성, 파주, 양산, 부산으로 영주귀국하신 사할린 어르신 160명이 참가했다고 주최 측이 전했다. 민족통일대구시청년협의회는 사할린에서는 <대구의 밤>, 한국에서는 <사할린의 밤>행사를 진해해온 단체다.

아래에 민족통일 대구시청년협의회에서 제공한 글을 게재한다.

(본사 편집부)

제7회 사할린의 밤을 마무리하며

맹위를 떨치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제법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던 9월의 첫날을 시작하며사할린 영주귀국 어르신들과 함께한 대구에서의 흔적을 남겨본다.

첫째 날

대구에서 열리는 일곱 번째 '사할린의 밤' 행사를 위해 전국 각지의 회장단 어르신들이 먼저 각자의 교통편으로 대구로 속속 도착하셔서 집결 장소인 호텔로 모이셨고. 제가 도착하니 벌써 기다리고 계신 모습에 이른 아침부터 설레임에 발걸음을 재촉하셨으리라 생각하니 죄송한 마음이 앞섰다.

안산 행사에서 뵈 어르신도 계셨지만 대부분 오랜 만에 뵈는 어르신들. 다가가 머리숙여 인사를 드리니 고맙게도 많은 분들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니 그 몽클함은 어디서도 느끼지 못한 기분였더라.

1년 365일, 망아도 두 번을 뵈는 것이 고작인 어르신들인데 어떻게 별로 한 것도 없고, 특출난 모양새도 없는 대구의 젊은 청년을 기억해주시고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는지 순간, 울컥했던 마음에 전날 잠을 설쳤던 피곤한 몸과 마음은 어느덧 가시고 명절 친척 어른을 맞이하는 것처럼 즐거웠던 재회임은 분명했습니다.

어르신들의 관심과 호불호를 판단하기엔 부족했지만 정성껏 고민해 준비한 오찬장의 환담으로 우선 긴장된 마음을 풀어드리고, 이어 대구 남구청을 방문해 조재구 청장님을 예방하고 구청에서 마련해준 고마운 선물도 어르신들 손에 꼭 쥐어드리며 이제 달성군을 향해 버스는 앞산 순환도로를 가로질렀다.

이어 천년고찰 유가사를 탐방해 주지스님을 예방하고 정성스레 마련해주신 떡과 함께 연꽃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며 조용했던 사찰에 분홍 연꽃과 함께 웃음꽃이 만발했다.

이어 저녁 식사장소로 이동하던 중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은 어르신들은 모두 전 대통령의 등신대 곁에 자리해 한껏 포즈를 취하며 핸드폰의 카메라 셔터를 누르셨다.

첫날의 하루를 마무리짓는 저녁 만찬장까지 이동하는 내내 어르신들에게 일정 안내를 하며 마이크를 잡은 손과 목소리는 한없이 떨리기만 했지만, 대구의 명소 한 곳이라도 더 보여드리고, 대구 방문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의미있는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말 주변 없는 내가 열심히 마이크를 목소리를 전달하고 또 전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풀려버린 다리와 쉬어버린 목소리에 피곤함을 느낄새도 없이 내일 일정을 준비하는 마음은 벅차기만 하였습니다.

어르신들 역시 아침 일찍 집을 나서며 도착하신 대구의 피곤한 일정에도 단 한 분도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으시고 호응해 주셨기에 더욱 고마운 하루였습니다.

매번 뵈 때마다 느끼는 작은 사실이지만 사할린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모두 참 소박하시고 순수하신 것은 어딜가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비록 한국어로의 표현은 서툴고, 어떤 부분의 한국 문화는 여전히 낯설다 느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투로 대구의 청년을 맞아주시는 어르신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똑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이튿날

이튿날 정오부터 준비된 오찬장에는 전국 곳곳에서 하나 둘 모여 버스를 타고 대구까지 힘든 걸음을 해주신 어르신들이 속속 행사장으로 도착하고 계셨습니다.

식사 후부터 시작된 '사할린의 밤'이 마지막 폐막을 알릴 때까지 어르신들이 아니었다면 감히 느낄 수 없는 벅찬 감동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연신 대구의 청년들이 고맙다고 어깨 토닥이며 말씀해주시던 어르신, 가시던 길 멈추고 고향 생각, 부모님 생각이 나신다며 우리 청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시던 어르신. 코로나19로 마음껏 기뻐하고 소리칠 수 없던 상황에서 준비했던 마음처럼 더 잘해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끝내 남았지만그러한 우리들을 위해 다시 한 번 "대구청년 최고"라며 엄지척 해주시던 어르신.

어찌 보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이 되었을지도 모를 이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련하게 몽클해집니다. 그런 어르신들을 생각해본다면 우리 대구청년들의 작은 수고쯤은 아무 것도 아닐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대한민국 조국의 품에 영주귀국하신 어르신들이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조국의 따뜻한 품을 느끼시고 편안하시길. 그리고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미소 바로 그것 하나로 저는 충분했습니다.

어르신들 사랑합니다.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모실수 있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족통일대구시청년협의회 사무국장 김기명

(사진: 민족통일대구시청년협의회 제공)



'2022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성황리에 폐막

18개국 75명의 한인 차세대 리더들 화합과 협력 다짐

18개국 75명의 차세대 리더들이 참여한 “2022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9월 4일(일)부터 9월 8일(목)까지 5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 폐회식 : 9월 8일(목) 11:30, 콘래드호텔

이번 대회 참가자들은 4박 5일 동안 FLC 공감 콘서트, 인사이트 포럼, 세계시민포럼, 지역별 네트워크 등 다양한 주제의 발표 및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민사 강연, 한국이민사박물관 견학을 통해서 역사의를 함양하고, 총리공관을 예방하는 등 정부와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호주의 서수아 참가자는 “대회를 통해서 전 세계 차세대 리더들과 소통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넓힐 수 있었고, 모국의 문화와 사회상을 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며, “앞으로 참가자들과 협력하고 단합하며, 모국과 거주국 간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리예카테리나 참가자는 “정체성에 대한 혼자만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하며 참가자들과 동질감을 느꼈고,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돈독히 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우리 한인 차세대 리더들이 위대한 한국의 전통을 이어가고, 가슴 아픈 분단의 역사를 지내온 남과 북을 잇는데도 역할을 해달라”고 하며, “나아가 한민족 평화 공동체를 만들고 세계 평화를 건설하는 일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Сеуле проводятся две крупные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выставки

2 сентября в Сеуле, в Корейском центре выставок и конференций COEX, открылась международная выставка-ярмарка совреме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Frieze Art Fair. Это крупнейшее в мире мероприятие в сфере искусства впервые проводится в азиатской стране. В нём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110 галерей из 21 страны мира, представляя огромное разнообразие экспонатов.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выставки-ярмарки Саймон Фокс говорит, что выбор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лицы для её проведения вполне оправдан. В Сеуле работают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деятели культуры, в городе много музеев и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галерей. Сеул – столица культуры, музыки, моды и искусства. Одновременно в том же центре проходит международная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ярмарка KIAF Seoul, крупнейшее худо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в стране, организованное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ей галерей. В нём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164 галереи из 17 стран, включая сеульские галереи Kukje и Hyundai. Свои работы представили на обеих выставках восемь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алерей. Директор PKM Gallery Пак Кён Ми говорит, что подоб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 это прекрас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более широко показать произведения мастеров, которые достойны этого. Работы 55 ведущи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мастеров совреме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представлены в отдельной экспозиции. Frieze Art Fair никогда не раскрывает данные о своих продажах, но, как полагают, в Сеуле они могут составить несколько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родажи на KIAF Seoul составили почти 48 млн долларов.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они утроятся.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РК Пак Бо Гюн с удовлетворением отметил, что в Сеуле собрались художники, искусствоведы и любители искусства со всего мира.

KBS World

Почти половина корейцев потребляют пищевые добавки

44,9% южнокорейцев потребляют витамины, пробиотики, кальций и другие пищевые добавк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Корей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данный показатель постоянно растёт. В 2018 году он составлял 32,1%. При этом среди женщин доля потребляющих добавок значительно выше, чем среди мужчин. Популярность добавок наблюдается во всех возрастных категориях. Наибольшая доля отмечена среди детей до двух лет (56,1%). Далее следуют люди в возрасте от 50 до 65 лет (51%), от трёх до пяти лет (48,3%), старше 65 лет (46,5%), от 30 до 50 лет (44,7%). Эксперты связывают подобную ситуацию с ростом интереса людей к собственному здоровью.

KBS World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РАМЁН»

3 сентября 2022 год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ТРК "АЛЛЕЯ"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ся первый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ФЕСТИВАЛЬ "РАМЁН". Жители и гости города стали участниками ярк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узнали много о рамен, который производитс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едь цель проведения фестиваля познакомить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с одним из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блюд не только в Корее и во всем мире - "рамен".

Организатором фестиваля стала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 Ханин" (председатель Чон Ен Гон). Ведущий мероприятия Михаил У озвучил следующую информацию: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Южная Корея занимает 6-е место по потреблению рамен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и 1-е место в мире по разнообразию РАМЁН - около 400 видов, например джин рамен, чамке, сеутанмен, ногури, чапагетти и т.д.

Обращаясь к истории происхождения рамен,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прошлого столетия, а точнее в 1963 году фирма САМЯНГ впервые выпустила рамен, который нужно было варить. Этот продукт очень быстро прижился, т.к. это очень удобно и вкусно».

В этот день гостей ждали большая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мастер-класс и дегустация 6-ти видов лапши быстр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рамен), конкурс на скоростное поедание острого рамена. Гости стали также свидетелями показательных выступлений спортсменов Центра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ОСТРОВ".

Желающих продегустировать рамен было очень много, за 2 с половиной часа дегустации было съедено 30 ящиков рамен, сообщ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мимо поедания рамен на скорость прошли различные конкурсы, дети могли посоревноваться в восточных боевых единоборствах.

На празднике было вкусно, интересно и весело, говорят гости.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Ли Е Сик



Икона Книги рекордов Гиннеса опровергла слухи о своем роспуске

Сеул, 5 сен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Поп-группа BTS проведет концерт для аудитории в 100 000 человек в Пусане в октябре в рамках поддержки заявки портового города на проведение Всемирной выставки Экспо 2030.

Агентство группы Big Hit Music сообщило, что шоу под названием «BTS еще впереди в Пусане» состоится на специальной концертной площадке, которая будет оборудована рядом с пляжем Илгванг в Пусане, 15 октября.

Это будет первый раз, когда группа проведет концерт в Южной Корее после концерта на Олимпийском стадионе в Джамиле в март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пециальная площадка вмещает около 100 000 зрителей, а шоу также будет транслироваться в прямом эфире в отдельное место — на открытую парков-

ку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ассажирского терминала в порту Пусан, где смогут собраться еще 10 000 человек. Концерт также будет транслироваться в прямом эфире на платформе сообщества фанатов Weverse и на платформа метавселенной Zepeto.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значило членов группы BTS послами по связям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выставки в портовом городе. Тогда участники группы заявили, что постараются не только помочь городу принять выставку, но и рассказать людям по всему миру о природе и культуре Кореи.

Назначение BTS послом заявки на проведение выставки было сделано примерно через месяц после того, как группа объявила, что все семь участников прекратят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и вместо этого сосредоточатся на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выступлениях.

Крупная компания — хорошая зарплата

Сеул, 5 сен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Разрыв в оплате труда между крупным бизнесом и небольшими компаниями в Южной Корее снова увеличивается после небольшого сокращения во время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Основная причина, по-видимому, заключается в значительном повышении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в крупных компаниях с мощными профсоюзами.

Согласно отчету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ой палаты Кореи, средня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в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компаниях с числом сотрудников менее 300 человек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оставила всего 61,72 процента от уровня крупных фирм. В 2019 году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лял 60,78 процента, но в 2020 году вырос до 63,29 процента.

«Сразу после начала пандемии разрыв в оплате труда сократился, потому что бонусы конгломератов

уменьшились, в то время как зарплаты на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немного выросли благодаря повышению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 сказал Ю Иль Хо из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ой палаты. — «Но теперь разрыв в оплате труда снова увеличивается, поскольку повышение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в конгломератах вернулось к норм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в конгломератах выросла в среднем на 6,6 процента, а на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 только на 3,9 процента.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этого года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выросла еще на 5,4 процента в крупных компаниях, но только на 5,1 процента в небольших.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ая палата предсказала, что разрыв в оплате труда еще больше увеличится в этом году, учитывая недавние масштабные повышения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в конгломератах.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로 연락 바랍니다.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увеличит помощь детям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увеличит помощь детям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испытывающим трудности в осво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обучении, а также родителям-одиночкам с низким доходом и молодым родителям.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30 августа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в ходе посещения центра семьи в сеульском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круге Куро-гу. По его слов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удет расширять поддержку семей,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приемлемые условия жизни детей, независимо от финансового положения родителей. Центр семьи был основан в 2006 году. Он оказывает различную поддержку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м семьям в вопросе адаптации, а также семьям, относящимся к уязвимым слоям общества. Услугами центра ежегодно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сорока тысяч человек.

KBS World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ласти РК оценивают ущерб, нанесённый тайфуном «Хиннамнор»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утро 7 сентября,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охождения тайфуна «Хиннамнор» через территорию РК погибли десять человек, двое числятся пропавшими без вести. Три человека получили травмы различной тяжести, сообщили в центральном штабе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чрезвычайным ситуациям и катастрофам. Семь из десяти погибших – жертвы затопления подземной парковки в городе Пхоха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В этом же городе погибла 75-летняя женщина, которую, сбили с ног потоки воды. Тело ещё одной пожилой женщины обнаружено в подтопленном доме в городе Кёнчжу. В уезде Ульчжу-гун города Ульсана погиб 25-летний мужчина. Тайфун «Хиннамнор» нанёс серьёзный ущерб жителям страны. Восемь семей в Сеуле и Ульсан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ходятся в пунктах временного размещения в связи с повреждением их жилья. 4.700 жителей провинций Кёнсан-Намдо, Чолла-Намдо и города Пусана были временно эвакуированы, порядка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до сих пор не могут вернуться в свои дома. На острове Чечжудо,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и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8.300 жилых домов и 3 тысячи магазинов затоплены или повреждены. В результате тайфуна повреждены также 14 рыболовных судов, 426 участков дорог и мостов, около 3.800 гектаро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земель.

РК будет решать проблему жертв трудовой мобилизации бессрочн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намерено решать проблему жертв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трудовой мобил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в период протектората Японии над Кореей бессрочно. Об этом заявил 6 сентября в ходе очередного брифинг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РК Им Су Сок. Комментируя сообщения японских СМИ о том, что в октябре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 предоставить японской стороне план раз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компенсаций жертвам трудовой мобилизации, он отметил, что Сеул готови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план. При этом конкретные сроки названы не были. Южнокорейский суд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продать часть активов японских компаний, которые были замешаны в трудовой мобил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для выплаты компенсаций жертвам. В июл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создало комитет по решению данной проблемы с участ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и независимых экспертов. Ожидается,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ускорит работу по подготовке плана разрешения спорной ситуации, активно проводя консультации с Японией.

Карантинные власти готовятся к празднику Чхусок

Порядка шести тысяч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будут доступны в период выходных по случаю праздника осеннего урожая и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Чхусок с 9 по 12 сентября. Не менее семисот из них будут открыты в праздничный день 10 сентябр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Хан Док Су. По его словам, сдать анализ на вирус и получить рецепт на лекарства можно будет также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оликлиниках и отделениях скорой помощи крупных больниц. В выходные дни будут работать также около 30 тыс. аптек и 225 круглосуточных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центров, предоставляющих медицинск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телефону.

Требование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результатов ПЦР-теста по прибытии в РК отменено

С 3 сентября прибывающие в РК из-за границы воздушным или морским транспортом освобождаются от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справки с отрицательным ПЦР-тестом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Как сообщили в Центральном штабе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чрезвычайным ситуациям и катастрофам, новое правило касается как южнокорейских, так 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Одновременно сохранено требование сдать ПЦР-тест в течение суток по прибытии в страну и соблюдать самоизоляцию до получения отрицательного результата. Между тем, в четвёртом квартале планируется начать применение бивалентной вакцины, эффективной против штамма коронавируса ВА.5.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овым препаратом будут обеспечены входящие в группу высокого риска. В сентябре начнётся вакцинация препаратом Skycobione производства компании SK Bioscience.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препарате в 2,9 раза больше нейтрализующих антител, и он не вызывает серьёзных побочных реакций. Приём предварительных заявок на вакцинацию начнется 1 сентября.

Сеул предложил Пхеньяну обсудить встречи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Сеул предложил Пхеньяну про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по проблеме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Юга и Севера. 8 сентября министр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Квон Ён Сэ призвал Пхеньян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ответить на данную инициативу. Он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торон смогут обсудить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гуманитарные вопросы. Министр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различия в политических системах и идеологии не должны мешать общению родственников. По его словам, при выборе места, даты и формата встречи будут учтены пожелания Севера. Министр констатировал, что ежемесячно умирают около четырёхсот членов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возраст которых превышает 80 лет. (RKI)

Времен связующая нить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главная выставочная площадка России ВДНХ готовится принять главный корейский праздник Чусок. Он состоится 17-18 сентября. В гостях у РК одна из организаторов и участников события, московски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Ирина Ким.

Ирина, представьтесь, пожалуйста.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школы в г.Ургенче училась в Москве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нефти и газа им.Губкина, окончила с красным дипломом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инженер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и эксплуатации магистральных газонефтепроводов, компрессорных станций и хранилищ. Защитила диссертацию на тему управления рисками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трубопроводов, кандидат технических наук.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Мой прадедущка Ким Николай Васильевич — Гер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известный в Хорезме рисовод. Мой папа — старший внук Николая Васильевича, хранитель всех его реликвий (орденов, медалей, грамот).

Ваше появление на главном корейском празднике в качестве организатора случайность или закономерность?

50 на 50. С детства корейские праздники были для меня поводом насладиться вкусными деликатесами; чартоги (рисовые лепешки), чимпени (то же самое, только другой консистенции) кадюри (хворост), чиргуми (проросший маш) и камди (квас). Это самые вкусн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из детства, которые сопровождают меня до сих пор.

На все праздники собирались в доме Николая Васильевича в Аль-Хорезми Янгиарыкского района Хорезм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ню как в пространстве сарая в деревянных корытах отбивали деревянными молотами праздничный хлеб чартоги из рисовой муки.

Это детство, а как оно напоминало о себе потом в большом городе?

Примерно год назад на московском рынке, выбирая рис для праздничного плова, услышала от продавца: А вы знаете, что самый лучший сорт для плова — хорезмский лазе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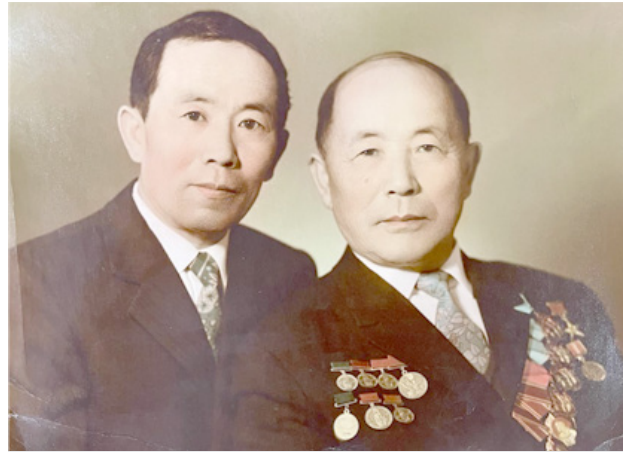
Тогда я только улыбнулась, в душе всплыли воспоминания и гордость за прадедущку, который внёс огром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рисоводства в Хорезме. Его совхоз был одним из самых успешных в СССР — одних только медалей ВДНХ девять!

Плов удался?

Когда мы в дружеской компании наслаждались пловом из того самого хорезмского риса, родилась идея о проведении фестиваля риса им.Н.В.Кима. Первый фестиваль прошёл на площадке москов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ищевых производств в декабре 2021 г. Я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а ректору Михаилу Бальхину, соорганизаторам, которые не только поверили в успех идеи, но и поддержали нас.

Не скажу, что мы были пионерами. Тем более, что название фестиваль риса оказалось не новым, оно уже эксплуатировалась. Было и есть много фестивалей плова. А фестивалей риса не было!

Гораздо труднее оказалось найти изюминку мероприятия. Я отстаивала свое название: фестиваль риса имени Н.В.Кима. Потому что это имя в рисоводстве стало почти нарицательным. А стало быть может объединить целые сообщества и в области гастрономии, и в области аграр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Н.В.Ким со старшим сыном.

техники, науки, селекции и многих других. Не говоря о людях..

Тема риса может сплотить народы и за пределами нашей страны. Рис наиболее используемая крупа для ежедневных основных и праздничных блюд в концепции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стран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Южной Америки, Африки. Да и в России потребление риса динамично растёт, обгоняя гречку.

Чусок словно ждал Вас! Как отреагировали на приглашени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разднике?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оно стало приятной неожиданностью, но с другой — закономерным. Достаточно много жителей того самого совхоза Аль-Хорезми сейчас живут в Москве и, без сомнения, станут желанными гостями Чусока.

В этом году выбрали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символическую площадку — ВДНХ, лучшее с точки зрения традиций, символическое место отметить праздник урожая, который может, помимо популяризации в Росси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традиций, объединить многие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по близкой всем теме урожая и даров осени.

Параллельно меня пригласили в оргкомитет Чусок-2022, который отмечается осенью, как праздник урожая, где собираются семьями, отдавая дань уважения старшим и почитая память предков.

Мне близки темы национальных традиций, особенно корейских, и я очень ценю дружбу между различными национальностями, особенно ценно приобретать этнический опыт и мудрость у всех народов.

Участвую в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ведения праздника Чусок с надеждой внести свой личный вклад в сохранение культурного и духов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своего народа.

В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России и во всем мире рис — это главное угощение за праздничным столом и основной ингредиент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блюд.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а площадка от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естиваля Риса имени Н.В. Кима.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ая площадка фестиваля представит для дегустации:

- традиционно-праздничные блюда из риса
- узбекский плов в большом казане, приготовленный «на открытом огне»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Алишера Халилова — почетного члена Ассоциации поваров Узбекистана
- блюда други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приглашенных к участию в Фестивале

Также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а выставка «О текущих достижениях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рисоводства» от «Федерального научного центра риса» из Краснодара, который осуществляет научно-методическое обеспечение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России по вопросам рисоводства.

Валентин Чен, медиагруппа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2022 г. — **96 руб. 92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96 семей в Аниве переселяются в новые дома

Две 48-квартирные многоэтажки на улице Пудова предназначены для привлекаем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и работников бюджетной сферы, которые будут платить за наем жилья на 50 процентов меньше среднерыночной стоимости.

— От всей души поздравляю новоселов. Выража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Сахалинскому ипотечному агентству» и подрядчикам, так как квартиры уже сдаются, что называется, под ключ - с ремонтом. Это весомое подспорье для работников бюджетной сферы, — отметила мэр Ани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Светлана Швец.

Монолитные дома построены по современным технологиям, на кухнях установлены раковины и электрические плиты, полностью оборудованы сантехникой ванные комнаты. На придомовой территории расположены 2 детские площадки, спортивная площадка с более чем 10 тренажерами, оборудованы стоянки.

«Сахалинское ипотечное агентство» строит арендные дома по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За 7 лет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введены более 2600 квартир. Наниматели спустя два года могут выкупить снимаемое жилье и стать полноценными обладателями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А все, кто проходит по условиям программы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ипотека», смогут сделать это раньше.

— Наша стратегическая задача - комплексная поддержка развития жилищного сектор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повышение доступности жилья для граждан. Уверена, что через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нынешние арендаторы этих квартир станут их собственниками, — рассказала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О «Сахалинское ипотечное агентство» Елена Бондарева.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отметили, что часть квартир в новых домах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ена детям-сиротам и переселенцам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ого фонда. Всего до конца года в Анивском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планируется к переселению около 100 семей из аварийного и сейсмоне пригодного жилья. Для этого по соседству с арендными домами на ул. Транспортной готовятся к сдаче еще два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а.

Напомним,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тавил амбициозную задачу — вводить по 50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ежегодно. Это около 7 тысяч квартир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Третью часть строящегося жиль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 арендное и социальное.

До конца года 90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ойдут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е медицинск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Об этом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ссказал на полях VII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Гла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панельной сессии «Открытый диалог в области медицины: кадры, технологии, возможности в новом мире».

— За счет концентрации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и внедрения бережливых технологий мы открыл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15 диагностических центро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бследовали 73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в этом планируем 90 тысяч. На начало сент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диагностику прошли свыше 31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В этом году — уже более 66 тысяч. Чекапы позволяют оперативно приступить к лечению, в том числе заболеваний,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угрозу жизни —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ых, онкологических, эндокринологических,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своем выступлении глава региона рассказал о работе,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повышение доступ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Так, за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овали централизованную систему планирования работы врачей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Это дало более 30 процентов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талонов.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рачей из больниц привлекают для приема пациентов в поликлиниках. Это возможно благодаря тому, что сегодня областные стационары загружены не полностью — на 50-70 процентов. Такой подход позволяет увеличить количество талонов к узким специалистам — к примеру, неврологам и офтальмологам.

Запись на прием к врачу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доступна несколькими способами — через личный кабинет каждого пациента в специальном региональном приложении, сервис Госуслуги, инфомат в медучреждениях или работающий круглосуточно колл-центр 1-300. При этом попасть к узкому специалисту можно, минуя терапевта. Такая возможность есть у людей, которые стоят на учете. Например, с онкологией, сахарным диабетом, заболеваниями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ой системы.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обследованию жителей удаленн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Помогает в этом система «Умный ФАП».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10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х пунктов области получили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диагностики и дистанционной передачи данных. С помощью SMART-технологий обследовано около 2,5 тысяч человек — без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перемещений в районный или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и траты времени. В этом году аналогичная аппаратура поступит еще в 13 ФАПов.

Также для обследования сельских жителей, проведения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используются мобильные комплекс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ботают 47 передвижных станций различного профиля — диагностические, лабораторные,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ие, рентгенологические. За 8 месяцев с их помощью обследовано 35 тысяч человек.

На острове Итуруп появится гостиница со СПА-комплексом

Трехстороннее соглашение, посвященное развитию турист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 отдале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заключено в ходе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Документ подписали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рпорации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Николай Запругаев 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бщества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Антерра».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Юрий Трутнев и Министр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Алексей Чекунков наблюдали за событием по видеосвяз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на острове Итуруп в районе озера Рейдовое появится четырехзвездочная гостиница со СПА-комплексом. Компания «Антерра» вложит в проект свыше 2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гостиница на 121 номер будет введена в строй к 2026 году. Только на этап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будет создано 100 рабочих мест.

—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достойное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на Курилах, необходим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оздавать на территории новые предприятия, рабочие места. С этой целью мы привлекаем на острова бизнес.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вело преференциальный режим для компаний, реализующих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проекты на Курилах. Острова на востоке России — очень интересная для туристов территория. Появление объектов, выводящих индустрию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на новый уровень, это рост турпотока, развитие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и в целом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курортчан,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снователь 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и «Антерра» Александр Тертыйный отметил, что на Итурупе построят отель сети Green Flow, где все будет направлено на эмоциональное и физическое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гостей, на обретение гармонии с собой и окружающим миром.

В 2022 году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был введен преференциальный налоговый режим для компаний, реализующих проекты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Организаци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с 1 января 2022 года, полностью освобождаются от уплаты налога на прибыль, земельного и транспортного налогов, налога на имущество на 20 лет с момента регистрации. Также к ним применяется пониженный тариф страховых взносов в размере 7,6 процента.

Власт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 владелец Сахалинского морского пароходства будут вместе развивать транспортн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Подписи под соглашением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на полях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поставил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ОО «УК «Дело» Дмитрий Паньков.

Стороны будут вместе работать над развитием транспортно-логист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морских портах Холмск и Корсаков, грузоперевозок на паромной переправе Ванино - Холмск, каботажных перевозок и в целом транспортно-логистических услуг, в том числе с помощью проектов цифров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 Развитие любой территории, ее экономики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прямо зависит от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оэтому для нас так важн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Управляющей компанией «Дело». Через порты Корсаков и Холмск идет основной поток региональных груз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ласти заинтересовано, чтобы они стабильно работали и развивались в интересах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Сейчас начинается модернизация Корсаковского порта, который должен стать одним из элементов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Уверен, мы будем успешно сотрудничать в рамках этого проекта, который на десятилетия вперед определит пути развития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области,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В августе этого года Группа компаний «Дело» приобрела Сахалинское морское пароходство, тем самы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российским субъектом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го присутствия и приложения наших усилий. Все активы Группы всегда уделяют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развитию тех регионов, где они работают. В этом проявляется и социальн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бизнеса и, безусловно, личн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и бережное отношение каждого нашего сотрудника к своему родному краю. Уверен, что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лично с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Игоревичем Лимаренко у нас будет налажено плотное конструктив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по всем насущным вопросам, касающимся, но не ограничивающимся транспортно-логистической сферой, — отметил Дмитрий Паньков.

Участники соглашения также пришли к единому мнению о том, что на Сахалине для решения кадровых проблем отрасли следует организовать подготовку кадров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Логистик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получит развитие по модели интегрированного курорта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группой компаний MANTERA подписано на полях ВЭФ 2022.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Горный воздух», расположенный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близости о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читается лучшим горнолыжным курортом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Сегодня общая протяженность трасс составляет 35 километров.

— Нам удалось привлечь к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по развитию курорта крупного игрока на этом рынке. Группа компаний MANTERA участвовала в создании горнолыж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олимпийского Сочи и сейчас эффективно управляет интегрированным Курортом Красная Поляна. Теперь этот огромный опыт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н на Сахалине. Компания планирует инвестировать средства в создание объектов гостиничной и турист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Наш регион получи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приток туристов и инвестиций, рост поступлений в бюджет, а также современные объекты, которыми будут пользоваться не только гости со всей России, но и жители региона,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дход к развитию курорта будет комплексным, модель интегрированного курорта станет драйвером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который работает круглогодично — это не только разнообразная отель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и трассы, но и рестораны, сервисы, событий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которые управляются в единой концепции. Считаю, что на Сахалине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родукт, очень конкурентный не только на азиатском рынке, но и во всей России. Это может быть второй Сочи, — сказал Александр Ткачев, бенефициар группы компаний MANTERA.

7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благоустроил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боты выполнили в Анивском, Долинском, Курильском, Холмском, Корсаковском и Макаровском районах. Всего до конца год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благоустроят 28 обществе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На эти цели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выделено более 394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 более 76 миллионов.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озвучала в ходе рабочего совещания в област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ногое делается для создания комфортной среды — строятся новые дома и дороги, ремонтируются дворы, устанавливаются детские и спор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имеет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Важно, чтобы у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была возможность отдыхать после работы, гулять с детьми и больше времени проводить на свежем воздухе. Работу по созданию комфортных и современ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необходимо продолжать,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ак, в селе Воскресенское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появилось обществен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с зоной отдых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устроили зеленые зоны, спортивную площадку с тренажерами и беговой дорожкой, установили скамейки, качели и систему освещения, обустроили велодорожки.

В Долинске благоустроили сразу три общественные территории. Новый облик получил сквер Славы. На объекте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входную группу, предусмотрели зоны отдыха и пешеходные дорожки, смонтировали освещение, обновили стеллу, разместили мемориальные доски памяти ветерано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обелиск «Капсула времени». Новыми красками заиграли зеленые зоны, на которых высадили почти 3 тысячи цветов.

Также в Долинске благоустроили общественную территорию в границах улиц Комсомольской и Севастьянова. На площади 168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уложили тротуарное покрытие, установили скамейки и скульптуру, выполнили озеленение. В сквере имени Чехова завершено устройство лестницы, подпорных стенок и тротуарного покрытия.

В Курильске благоустроили сквер у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На обществе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появились новое покрытие, входные арки, светильники в виде музык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световые слова «Сквер искусств», архитектурные формы и новые зеленые насажд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ая территория при аллее Славы в Макарове получила пешеходные дорожки, лавочки,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стеллу, лестницу и пандусы. На объекте выполнили озеленение.

В селе Чехов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благоустроили общественную площадку — уложили новое покрытие и тактильную плитку, обустроили газон, высадили деревья, предусмотрели велопарковки.

Также во время совещания губернатору доложили о ходе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1000 двор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проводится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за счет федеральных средств благоустроено 38 дворов. Работы выполнены в Анивском, Невельском, Ногликском, Поронайском и Тымовском районах. Всего до 1 октября на островах планируется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84 придомовые территории. Работы проводя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 рассказала областной министр ЖКХ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Помимо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дворов,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торой год подряд выполнялся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й объем ямочного ремонта. Работы завершены на более чем 950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ях.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고령군 대창양로원에 위문품 전달! 농촌지도자 고령군연합회, 추석 맞아 대창양로원 방문

농촌지도자 고령군연합회(회장 김상덕) 회원들은 추석을 맞이하여 지난 5일 쌍림면 매촌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대창양로원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양로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 이여서 봉사활동 대신 햅쌀과 고기, 과일, 음료 등 위문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김상덕 회장은 연로한 어르신들을 대창양로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잘 돌봐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대창양로원 신원식 원장은 태풍 대비로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매 명절마다 방문하여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하다고 하였으며 현재 사할린 이주 어르신 여섯 분을 포함하여 많은 어르신이 계시지만 대내외적으로 지원이 부족하여 양로원 운



영이 어려운 상황에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지역사회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고 위문품을 전달해주어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에게 햅쌀로 따뜻한 밥을 지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고령=환경일보]

'2022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겨울과정 참가자 모집

국립국제교육원 주최, 국립공주대학교 주관
9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공주대학교(총장 원성수)는 국립국제교육원이 주최하는 '2022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겨울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9월 2일 밝혔다.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은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 및 국제화 마인드 배양을 위해 1962년부터 실시된 국립국제교육원의 모태 사업으로, 고국과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2009년부터 공주대학교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2022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은 한국 초청교육과 원격교육, 유튜브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편성돼 있으며, 참가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겨울과정 모집대상은 국내외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전 세계 재외동포로, 한국사회·문화 이해를 교육 목



표로 하는 한국어해과정(겨울)과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로운 학습이 가능한 원격교육과정(겨울)에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과정은 참가자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학급을 편성해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 세계시민교육 등의 교과활동과 더불어, 재외동포 학생들이 흥미

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 학습, 교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한국어가 서툰 학생들을 위해 멘토링으로 여러 언어권의 상담도 제공된다.

초청교육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교육경비 전액과 항공료 70%(일부 국가 제외)가 지원된다.

초청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재외동포는 거주국 재외공관을 통해, 원격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재외동포는 이메일(hansaram@kongju.ac.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 홈페이지(www.hansaram.kongju.ac.kr)나 거주 지역 재외공관·한국교육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외동포신문)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제13회 한국어교육자 체험수기 공모전' 개최

외국인 및 재외동포,
다문화가정 구성원 대상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체험수기 모집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이메일로 접수

문화예술 특성화 사이버대학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총장 이종찬)는 한국어교육학과와 국제언어교육원 공동주관으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13회 국내 및 해외 한국어교육자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국내 및 해외에서 한국어교육의 발전과 한국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저변을 전 세계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3회를 맞이한 공모전은 훈민정음 반포 576돌을 기념해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이어진다.

공모 주제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다문화가정 구성원 대상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체험이다. 다양한 교육방법 및 생생한 지도체험 등의 내용을 담으면 된다.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지도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25매 내외, A4용지 기준 4매 내외로 작성하면 되고,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essay@scau.ac.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한국어교육학과 및 국제언어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우수상(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상) 1명에

게는 상장 및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또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상, 종이문화재단 이사장상, 국제한국어교육재단 이사장상 각 1명에 상장과 상금 50만원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우수상 각 3명에 상장과 상금 50만원씩, 장려상 각 5명에 상장과 상금 20만원씩, 입선 각 10명에 상장

과 상금 10만원씩 등 총 22명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당선작은 11월 중순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한국어교육학과 홈페이지에서 발표하며, 추후 작품집으로 출간된다. 지난 1~12회 공모전 당선작 250여 편도 모두 한국어교육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공모전을 주관하는 육효창 국제언어교육원장은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 세계 한국어교육자들의 열의와 노력이 끊이지 않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한국어교육의 균형 발전을 가져왔다"며 "전 세계 한국어교육자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과 관련된 다양하고 생생한 경험담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한글박물관, 재외동포재단, 세종학당재단, 종이문화재단, 국제한국어교육재단 등이 후원한다.

(재외동포신문)

전 세계가 하나된 어울림 축제! 추석맞이 제3회 '외국인 어울림 한마당' 개최

온누리행복씨앗후원회, 안산시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어울림한마당' 개최국적, 연령, 계층을 뛰어넘은 하나 된 축제의 장

온누리행복씨앗후원회는 9월 4일 오후 3시, 안산올림픽기념관 공연장에서 추석맞이 제3회 외국인 어울림 한마당을 개



최했다.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방문하기 힘든 외국인, 다문화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중국, 앙골라, 부룬디, 네팔,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인도, 사할린 동포 등 다양한 국적의 관객들이 대거 참여했다.

안산올림픽기념관 로비에는 한국전통의상을 입은 온누리행복씨앗후원회 자원봉사자들이 활쏘기, 제기차기, 투호놀이 등을 진행하여 명절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앙골라에서 온 소피아는 "딸과 함께 참여했는데, 한국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하여 교육적으로 너무 좋은 경험이 되었고, 저 또한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특히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국 전통의상을 입은 분들을 보니 신기했습니다."라며 즐거워했다. 한국 체험 부스를 담당한 온누리행복씨앗후원회 위성임 자원봉사자는 "추석 명절에 고향에 갈 수 없는 외국인들을 위해 우리가 준비한 작은 손길이 이 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을 보며 너무 보람되고 뜻 깊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안산올림픽기념관 공연장 안에는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져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어린이 댄스팀 '키즈에버그린'의 남태평양 문화댄스 '파테파테'와 '킹컨하우스 부천스쿨'의 활기찬 댄스로 외국인 어울림 한마당의 문을 활짝 열었다. 관객들은 밝은 미소를 띤 학생들의 공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한국인과 중국인 실버로 구성된 '싱글빙글 댄스팀'은 나이와 국적을 뛰어넘어 밝고 힘찬 공연을 선보였고, 객석에서는 뜨거운 응원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특히 실버 계층 관람객들은 흥에 겨워 함께 춤을 추기도 했다. 이어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은 '우리춤 무용단'의 부채춤은 참석한 외국인들의 시선을 매혹시켰다.

이날, 안산시의회 문화복지부위원장 황은하 의원, 설호영 안산시의원, 선현우 안산시의원, 최진호 안산시의원 외에도 많은 귀빈이 참석해 외국인 어울림 한마당 개최를 축하했고, 안산시의회 황은하 문화복지부의원장은 "이렇게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한 온누리행복씨앗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안산시에서도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많은 분들과 행복을 나누는 안산을 만들겠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환영사를 전했다.

이어, 미얀마 새댁 생뎃뻘은 "문화 차이와 민중화운동으로 힘든 현지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한국인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여 예쁜 가정까지 꾸리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한국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발표했다. 관객들은 크게 공감하며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다음으로 온누리행복씨앗후원회가 개최했던 'GOT TALENT'의 역대 수상자들이 무대를 장식했다. 베트남에서 온 농티나는 베트남 전통 악기를 연주했고, 우즈베키스탄 디마시아스와 필리핀 멜로디 삼손은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였다.

국제인성교육연구원 배상규 대표가 '넘어지는 법'이라는 주제로 특별 메시지를 전했다. "스키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넘어지는 법부터 배웁니다. 우리 인생에서 실패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1등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가 수천 번의 넘어짐 끝에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라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인도, 미국, 부룬디 등 세계 각국 전통 공연이 펼쳐졌고, 아프리카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북춤에 모든 관객은 함께 박수치고 춤을 추며 하나로 어우러지는 시간이 되었다.

추석맞이 외국인 어울림 한마당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한 여러 기업과 온누리행복씨앗후원회 회원들이 준비한 다양한 경품 추첨이 대미를 장식했다. 이 날 '케빈스튜디오', '한아조', '민규네고가구', '공주굴비', '류코리아', '강릉솔밭한과', '북호두 초지점', '아름다운날들', '돌담길상주꽃감', '한복은'에서 후원했다.

온누리행복씨앗후원회는 "앞으로도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이모저모

(2면의 계속)

Результаты диктанта можно будет узнать на сайте диктантпобеды.рф через месяц после написания. Победители получают ценные подарки, либо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баллы по ЕГЭ в дисциплине «История» — это касается только выпускников 11 классов.

체호브 센터, 사할린 지방으로 순회 공연

9월 13일(화)부터 23일(금)까지 사할린 체호브 국제 연극센터가 지방 순회 공연을 시작한다. 연극 공연단은 티몹스코예, 므가치,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키몹스코예, 스미르니흐 등 5개 주거 지역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 '8시에 방주에서 만나'(6+)를 선보일 예정이다. 독일의 극작가 울리히 후브의 우화인 '8시 방주에서 만나'는 극장 무대에 오른 지 10년이 넘는 장수 연극이다.

어린이 관객을 대상으로 세 마리의 펭귄 친구들과 세계 홍수에 대한 연극은 어린이 관객들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진지하고, 재미있고, 깊이 있게 각색되었다. 이번 순회 공연의 특이함은 티몹스코예,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스미르니흐 지역에서 어린이 관객(6세+) 대상으로 체호브 센터의 여배우인 타치야타 막시모와, 엘레나 데니소와가 활동교실을 진행하는 것이다.

9월 23일(금)에는 코메디 연극 '보잉-보잉'(16세 이상)을 아나와 주민들에게 상연한다.

이 코메디극은 파리의 젊은 바람둥이 남자가 3명의 매력적인 항공기 스튜디어스와의 로맨스에 대한 얘기다. 3명의 애인들은 각기 다른 항공사

에서 근무하여 기발한 바람둥이는 모든 애인들의 비행기 '이착륙' 일정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조율해야 한다. 발생하는 불상사들이 끝없이 우스꽝스런 상황으로 이끌어간다. 이 공연은 체호브 센터에서 이미 8년째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극장 홍보부가 전했다.

Чехов-центр отправится на гастроли по Сахалину

С 13 по 23 сентября пройдут гастроли Сахалин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театрального центра имени Чехова. Труппа театра покажет спектакль для детей "У ковчега в восемь" (6+) в пяти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Тымовском, Мгачи,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Кировском, Смирных. Сказка-притча немецкого драматурга Ульриха Хуба "У ковчега в восемь" — долгожитель театра, уже более 10 лет идет на сцене театра.

Постановка о трех друзьях-пингвинах и Всемирном потопе, адресованная детской аудитории, сделана всерьез, талантливо и глубоко, с любовью и доверием к маленьким зрителям. Изюминкой этих гастролей станут мастер-классы (6+) для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которые проведут актрисы Чехов-центра Татьяна Максимова и Елена Денисова в Тымовском,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Смирных.

23 сентября на комедию "Боинг-Боинг" (16+) приглашают анивчан. Это комедия о романе молодого парижского ловеласа с тремя очаровательными стюардессами. Избранницы летают на разных авиалиниях, и это вынуждает изобретательного жениха подстраивать свою жизнь под расписание "прилета-отлета" всех "невест". Возникающие недоразумения приводят к бесконечно смешным ситуациям. Спектакль с большим успехом идет в Чехов-центре уже 8 лет,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театр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1980년대 레닌의 길로(현 새고려신문) 신문사에서 우글레고르스크 특파원으로 활약하셨던 이수자 씨의 남편 이 블라디미르 니콜라예위츠 씨가 한국 파주에서 2022년 9월 5일 89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음을 부고하고, 비애에 젖은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이수자 씨 동창의 남편 이 블라디미르 니콜라예위츠 씨가 중환으로 대한민국 파주시에서 9월 5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는 비보를 접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사범전문학교 조선과
1963년도 졸업생 일동

КИНО

ТЕАТР

КОНЦЕРТЫ

SAKH.COM • БИЛЕТЫ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ru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sax.com

Google play

App Store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